

코로나 불안... 학부모들 “원격수업 23일로 앞당겨 달라”

전국적 확산세에 광주·전남 수험생 긴장... 학교 대신 집에서 준비도 “혹 감염 될라” 학원 가기 부담스럽고 스터디카페·독서실 등 꺼려 교육당국 방역 고삐 죄기 속 “무사히 시험장 들어갈 수 있었으면...”

“무사히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연일 300명 넘게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자 방역당국은 물론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 사태로 달라진 시험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와중에 확진자까지 늘고 있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은 수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3일부터라도 원격수업을 단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 고3 수험생이 전남에 1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역 교육당국은 내달 3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는 등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확진자 증가 추세 등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수능 전까지 교직원들이 솔선수범해 방역 관리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임 등 개인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교내의 각종 집합행사의 비대면 전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교육당국의 안전한 수능 대비책에도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시행 1주 전인 오는 26일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를 수능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육청에서는 원격수업 전환일을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학사일정 조정하고 있다. 또 일부 고3 수험생들은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뒤, 가정에서 대입을 준비하기도 한다. 수능이나 대학별 논술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코로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으로 보인다.

학원에 다니는 수험생 역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디서 마무리 학습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학원·교습소에 대한 대면 교습 자체 권고에 따라 학원 가기가 부담스럽고,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등은 방역상 꺼려지기 때문이다.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장모양은 “혹시라도 학원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수능을 망칠 것 같아 불안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렇다 보니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걱정도 깊어가고 있다. 학부모 박모 씨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도 증폭되는 것 같다”면서 “아이들이 모두다 수능장을 무사히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 좁은 책상에 가깝막까지 설치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 보는 아이들이 가없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방역 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수능 담당 장학사는 “코로나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수능 역시 여러 차례 미뤄진 만큼 모든 수험생이 마음 편히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돼야 할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방역에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도 수능 당일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스터디카페 방역 소독 '수능 특별 방역'이 시작된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광주 북구청 일곡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 첫 확진 수험생 거점병원서 시험 본다

도교육청, 10개 병상 시험장 마련

전남도교육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수능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격리 수험생을 위해 총 7개 시험장에 21개의 시험실을 확보했다.

도 교육청은 도내 7개 시험지구에 총 53개 시험장 학교를 운영하며,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기존 28명에서 4명 줄여 24명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200여 개가 증가한 811개 시험실이 운영된다.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5명을 추가 위촉하는 등 부분 요원과 감독관을 전년보다 약 700명 증원해 안전한 시험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이날부터 12월 3일까지 2주 동안 수능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키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수능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격리 수험생을 위해 총 7개 시험장에 21개의 시험실을 확보했다.

도 교육청은 도내 7개 시험지구에 총 53개 시험장 학교를 운영하며,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한빛원전 5호기 정비 부실 더 있었다

원자로 헤드 관통관 문제 2개 추가

한빛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kW급)가 부실하게 정비가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빛 5호기는 6개월이 넘는 정비기간 중 점검을 마치고 이상없다며 가동에 들어갔다 갑자기 멈춰섰고 “정비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한빛원전측은 당초 ‘셀프 조사’를 벌여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 중 1개 이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었던 관통관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점검 결과를 ‘허위’로 발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원전 지역사무소는 19일 영광 방사능 방재센터에서 ‘한빛원전안전협의회’를 열고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 정비 의혹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원안위 조사 대상은 ▲‘인코넬 690’ 재질로 용접해야 하는 원자로 헤드 관통관

에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했다는 점 ▲용접사들이 관리부실을 틈타 대리시험을 치르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점 등 2개 항목이었다.

한수원은 6개월 간의 정비기간 중 밝혀낸 것 외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2개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용접재료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한수원은 애초 제 13차 계획에방정비기간 때 스테인리스 재질의 용접봉 1개(69번)를 관통관에 사용한 것 외에 다른 부실 정비 항목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은 CCTV 녹화기록을 통해 총 84개의 관통관 중 57개는 이상이 없고 2개에는 잘못된 용접봉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 나머지 9개는 촬영 상태가 불량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16개는 녹화기록조차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사 대리시험 의혹에 대해서는 용접사 인터뷰 및 재가량 검증을 실시하고 용접 품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중분양 사기’ 지산주택조합 수사 마무리...22명 기소

검찰이 신축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125명에게 81억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이중 분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지역주택조합장,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22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들은 여전히 81억원을 돌려받기가 쉽지않은데다, 조합원들도 이번 사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애초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광주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홍석기 부장검사)는 19일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A(69)씨와 대표 B(47)씨, 분양대행사 본부장 C(55)씨 등 2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B·C씨 등 3명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분양대행사 팀장 D(34)씨와 전 지산주택조

합장 E(46)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분양대행사 팀원 F(24)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에게 81억여원을 가로채거나 사기행각을 파악하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업무대행사 회장 및 분양대행사 본부장 등 21명은 평택과 군산 등에서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늘자 광주로 옮겨 이중 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합원 지위가 확정됐음에도 조합원 자격 결격 세대나 미분양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 지산주택조합장 E(46)씨는 지난해 11월 업무대행사의 사기 행각을 파악하고도 형사고발 하

지 않고 묵인하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체와 2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방조, 배임수제)를 받고 있다.

전 조합장 E씨는 또 자신의 아파트 가격을 2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2억700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추가됐다.

한편, 지산주택조합은 저축은행 대출금(149억) 상환 기일(19일)을 연장하려면 일부 대출금(47억700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고 조합원 1인당 추가 부담금(500만~4680만원)을 이날까지 내도록 조합원(340여명)에게 통보해 47억여원의 상환금액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합측은 또 시공사를 기존 한양건설에서 한국건설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정원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신아래 마을 뒷 야마산바라본 정남 매 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서 7004㎡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5만원

국민공인중개사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2021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논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작성)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t.jnu.ac.kr)
구비서류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공과대학 4호관 202호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 일시	2020. 12. 3.(목) 10:00 ~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20. 12. 23.(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인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를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